

도내 고교생 수능성적 상위권 '깡충'

전북과 도세 비슷한 8개 도 전역중 전년비 향상

도내 학생들의 수능 성적이 재정자립도 및 사회문화 여건이 유사한 8개 도권역 가운데 상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제주)를 포함해도 중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7일 발표한 2017학년도 수능 성적 분석 결과 전북의 영역별 표준점수는 국어 99.0, 수학 가 93.7, 수학 나 99.0, 영어 96.9를 기록했다.

특히 국어는 8개 도권역 가운데 1위이며 수학 가 6위, 수학 나 2위, 영어 3위로 전년도에 비해 국어와 수학 가운데 눈에 띄는 향상을 보였다.

특별·광역시와 특별자치도(제주)를 포함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도 국어 5위, 수학 나 9위, 영어 10위의 중위 성적을 거두었고 수학 가는 3계단 상승한 14위를 기록했다.

영역별 등급비율에서도 전북은 국어와 수학 나 1~2등급 비율이 각각 도권역 2위(각각 17개 시·도 중 전국 7위, 전국 8위)에 올랐으며 수학 가와 영어는 도권역 3위의 성적을 거두었다.

8~9등급 비율이 낮은 순위로 8개 도권역에서 각각 국어 2위, 수학 가 3위, 수학 나 5위, 영어 2위로 전년 대비(2016년 국어 2위, 수학가 6위, 수학나 6위, 영어 2위) 수학 가, 수학 나에서

모두 향상되었고 국어, 영어의 8~9등급 비율은 2위로 전년도와 동일하다.

8~9등급 비율이 감소한 것은 기초학력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과목별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의 결과로 해석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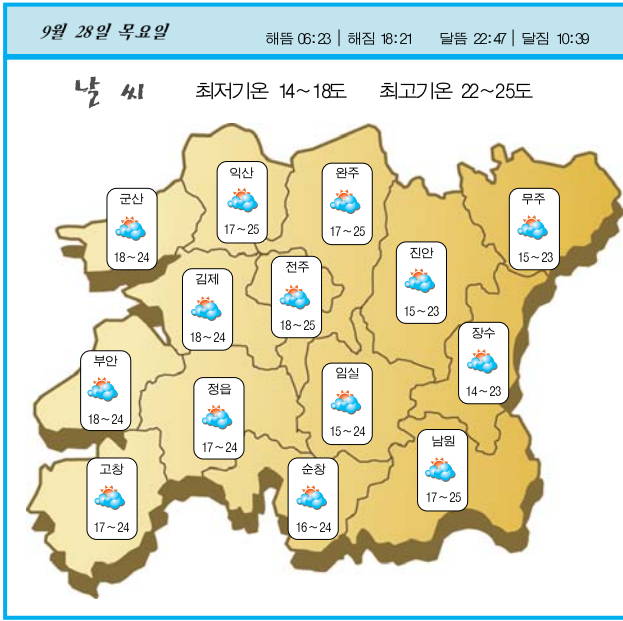
이렇듯 2016학년도 수능에 비해 수능 경쟁력이 전반적으로 향상된 것은 내실 있는 교육과정운영 강조, 수업의 질 향상을 위한 교사의 전문성과 동료 상에 기초한 교수·학습 공동체의 활성화가 빛을 발했기 때문이며 특히 학생 개인에 대한 교사의 맞춤형 지도 및 내실 있는 교실수업개선을 위한 교과교사연수, 동아리활동 등의 다양한

교육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일반교 교육역량강화에 노력을 기울인 결과로 해석된다.

특히 여건이 유사한 8개 도권역 중 국어가 1위를 차지한 것은 독서·토의·토론수업, 인문해캠프, 독서·철학 성장 프로그램 운영 등 독서와 사유, 말하기와 쓰기로 생각을 표현하고 타인과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시도들 때문으로 보인다.

도교육청은 "매년 변화하는 대입 제도에 맞춰 교사·학생·학부모 대상 다양한 연수 및 입시설명회, 맞춤형 진학상담 강화, 대입 진학상담 밴드 운영, 모의 면접 프로그램, 진로멘토링 운영 등 학생 개인별 맞춤형 진로진학 교육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정해은기자



'百聞不如一見', 추천마을 주민 희망을 엿보다!

팔복동 추천마을 주민들, 부산 영도해돋이마을·감천문화마을 우수 선진사례 탐방 나서

주민주도형 마을재생사업을 통해 살기 좋은 마을 만들기에 나선 전주시 팔복동 추천마을 주민들이 우수 사례 학습에 나섰다.

전주시 추천마을 주민협의회가 지난 26일 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영도해돋이마을과 감천문화마을을 잇따라 방문하는 선진지 사례 탐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주민협의회가 '팔복새마을 조성사업' 3년차를 맞아 주민들이 새마을사업 선진사례 탐방을 통해 도시재생의 방향과 과정을 체감하고 팔복새마을사업에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하는 등 주민들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천마을 주민들은 이날 부산 영도해돋이마을 마을활동가와 부산 감천마을의 총괄 코디네이터의 도움을 받아 마을의 조성 배경, 사업 과정, 마을 현황 등을 꼼꼼하게 살폈다.

봉래산 풍력에 얽혀 있는 해돋이마을은 약 500명 정도 살고 있으며, 거제도 포로수용소에 수용되었던 북한 피난민들이 가장 먼저 살 터를 꾸렸던 우리의 어버이 세대들의 삶의 애환이 묻어 있는 마을로 2010년대에 들어 행복마을만들기사업과 새마을사업 등을 통해 더 좋은 마을이 되기 위해서 주민들이 힘을 모으고 있는 마을재생의



전주시 추천마을 주민협의회가 지난 26일 마을 주민 4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부산 영도해돋이마을과 감천문화마을을 잇따라 방문하는 선진지 사례 탐방을 실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우수사례지다.

특히, '총각다방'이라는 곳에서는 마을활동가가 주민들 속에서 같이 호흡하며 생활을 꾸려 나가고, 골목마다 도자기를 구워 만든 벽화로 꾸며져 다른 벽화마을과는 차별화된 모습을 확인했다. 이 마을에는 범죄없는 안전한 마을을 만들기 위해 셉테드 안전지도까지 만들어져 있다.

또한, 감천문화마을의 경우, 산자락을 따라 질서정연하게 늘어선

계단식 집단 주거형태와 거의 모든 길이 미로 같은 골목길인 특색과 역사적 가치를 살리기 위해 사탑과 문화가 주인이 되는 공간으로 재창조돼 마을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해 나가고 있음을 확인했다.

새마을 주민들은 해돋이마을과 감천문화마을의 부어를 통해 선진 도시재생의 인프라를 체감하고 마을공동체의 다양한 사례를 들으면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과

추천마을의 변화를 위해 주민들이 해야 할 일들에 대한 논의의 시간을 갖기도 했다.

강민구 추천마을 주민협의회 위원장은 "팔복 새마을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선진 사례들의 장점들을 교훈 삼아 우리 마을에 되새길 필요가 있다. 도시재생 선진지 현장 답사를 통해 함께 희망을 가꾸는 마을이 되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농약/풍물굿연구소, 연구저서 등 6권 출간

전북대학교 농약/풍물굿연구소가 설립 2년만에 지역의 농약과 민속놀이 등의 역사와 변이 등을 담은 6권의 책을 내놓았다.

이번에 출간된 연구 저서는 '성당포 농약'을 비롯해 '전주 기접놀이', '풍류와 풍물굿' 등이며 보고서는 '무주 좌도농약', '김제농약', '호남우도 부안농약' 등이다.

성당포 농약은 익산시 성당면 성당리 성당포구 마을의 독특한 농약을 조사·정리한 책으로, 호남 우도농약과 좌도농약 및 충청농약의 접변지역에서 일어난 농약의 독특한 변이 현상을 자세히 담았다.

전주 기접놀이는 전주시 삼천동·평화동 일대에 전승돼 왔고 지난해 전국민속예술축제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전주 기접놀이'를 자세히



조사·정리한 책이다.

풍류와 풍물굿은 전북대 농약/풍물굿연구소 창립기념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사례의 주요 논문들을 모아 새롭게 체계화한 연구서다.

무주 좌도농약, 김제농약, 호남우도 부안농약 등 3권의 보고서는 각기 무주농약, 김제농약, 부안농약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조사·정리한 보고서들로 이 각 지역농약의 발전에 중요한 계기를 마련하고 있다.

/정해은기자

전주시, 주산지GAP 안전성 분석사업 시행

GAP(농산물우수관리)인증면적 확대 계기 마련 기대

전주시는 농림축산식품부의 정책에 발맞춰 주산지GAP 안전성분석사업(토양분석,수질분석)에 착수했다고 27일 밝혔다.

GAP(농산물우수관리) 농산물이란 농산물의 생산과 수확, 수확 후 관리 및 유통의 각 단계에서 농약, 중금속 등의 위해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안전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공급하고 농업인들에게는 새로운 판로를 제공하여 농가 소득을 높이는 목적이 있다.

시는 올해 GAP 인증 확대를 위해

오는 11월 말까지 총 45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효성동과 전미동 일대의 농산물 주산지(벼,미나리,호박) 면적 약 600ha를 대상으로 GAP 안전성 분석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GAP 인증에 대한 홍보 활동 강화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가 GAP 인증에 대한 관심과 인지가 높아지길 바라며 지속적으로 GAP인증 면적을 확대해 안전한 먹거리가 공급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